

지역경영전략 연구 시리즈 ①호
2005. 9

토고미 마을

도시민을 가족으로 유치하는 나눔의 농사가족 전략

송미령 (KREI 연구위원)

KREI 지역경영전략 연구 시리즈는

국내외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가꾸기 경험담을 통해
농촌지역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KREI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이는 누구나 mrsong@krei.re.kr로 원고를 보내 심의를 거친 후 게재할 수 있고,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기환 (KREI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위 원 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위 원 송미령 (KREI 지역개발팀장)

위 원 임영진 (지니릴레이션 대표이사)

위 원 전영미 (농림부 사무관)

위 원 허 장 (KREI 연구조정·평가팀장)

위 원 홍경진 (농민신문 기자)

저자 송미령 (宋美玲)

1967년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지역개발팀장을 맡고 있다. '도시경제', '농촌개발', '도농교류', '농촌관광' 분야에서 수십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쓴 바 있고, 올 해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대한 한·일 비교》 등의 연구를 수행중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을 만든다

토고미 마을

도시민을 가족으로 유치하는 나눔의 농사가족 전략

지역경영전략 연구 시리즈 ①호 | 글. 송미령 (KREI 연구위원) mrsong@krei.re.kr

토고미 마을

1	토고미 마을은	06
2	대안적 문화 운동의 한 흐름, 도농교류	08
3	토고미 마을, 그 시작에서 성공까지	10
4	1999년 그후 6년, 토고미 마을이 달라졌다	14
5	토고미를 통해 배운다	16
6	남겨진 과제들	17
	부록 토고미 마을에 대한 짧은 한마디	19



1. 토고미 마을은

토고미 마을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다. 화천군은 서울에서 3시간이 걸리며 휴전선으로부터 30km 남쪽에 위치한 오지로서, 경지면적도 작고 기후적 조건도 좋지 않아 별다른 얼굴상품이 없는 농업지역이다. 그나마 토고미(土雇米)는 그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화천군에서는 꽤 큰 경지를 가진 마을이다.

토고미라는 이 마을의 명칭은 예로부터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 품을 팔면 품삯을 쌀로 주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쌀 이외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호박,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콩 등 평범한 것들이다.

토고미 마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고 최근에는 이웃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어 외지인에 대해 폐쇄적인 편은 아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뽐내는 다른 곳의 농촌 마을과는 달리 토고미 마을에서 주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적 행사는 대보름맞이, 추석노래자랑 정도라고 하니 문화적 토양이 그리 풍부한 곳은 아니라 짐작할 수 있다.

● 화천군의 위치 및 토고미 마을의 모습



토고미 마을에는 현재 총 82호가 거주하며,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주민이 80명 정도이다. 마을 전체 가구 중에서 농가는 58호인데, 이 중 일부는 독거노인과 겸업농가이라 전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농가는 30호 정도이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는 군인 가족이거나 화천읍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종교인 등이다.

표 . 토고미 마을의 일반 현황		
가 구 (호)		
계	농가	비농가
82	58	24
인 구 (명)		
계	남	여
398	214	184
농경지 (ha)		
계	전	답
88	35	53

그러나 이제 이 작고 평범한 마을은 한국의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부동의 브랜드가 되었다. 연간 어림잡은 평균으로 1만여 명의 도시민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도시민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2. 대안적 문화 운동의 한 흐름,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물품의 거래라든가 주말농장, 농가민박 등을 통한 사람들간의 왕래, 도시민의 지역축제나 행사 참여를 통한 문화적 접촉 등의 형태로 초보적 단계의 도농교류(都農交流)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정에서 주목하는 도농교류는 농업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유통, 가공,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구축하고, 관이 주도하는 물량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주민과 소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새삼 주목할 만하다.

도농교류란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농촌 편에서 보면 효과적 지역개발 수단, 나아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대안적 문화 운동의 한 흐름으로서 의의가 있다.

농촌에 내재되어 있는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주민소득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다양화하여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이며, 도시민들에게 도시적 삶의 양식 내지 현대 물질문화 등에 대응한 대안적 삶의 양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파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운동의 수단이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간의 양 방향적, 반복적, 지속적 교류가 특징이다.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파는 유형은 교류라 할 수 없다.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야 진정한 의미의 교류라 할 수 있다.

이웃한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농촌 진흥을 목표로 ‘공장 유치가 어려운 농촌에서는 지역산업을 일으키자’, ‘대규모 관광지와 경쟁하려면 자연보호와 생활문화운동을 일으키자’,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농산물을 찾아 소비자와 직거래하자’는 등의 주제어를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1975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사업 형태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1987년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부터는 국토 전체의 도농간 교류 네트워크 구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거의 모든 농촌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농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인접형 농촌의 도농교류사업은 도시주민에게 농업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농원,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중산간형 원격지 농촌의 도농교류사업은 지역특산품의 우편판매나 계약재배, 도시민의 장단기 체류를 위한 보양지, 별장지 등의 반(半)정주공간, 정주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武内和彦·農村生態系計劃研究會, 1996).

3. 토고미 마을, 그 시작에서 성공까지

오리를 농사꾼으로 고용하다

토고미 마을 출신으로 농협에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귀농한 한상열씨(토고미 나눔의 농사가족 가장)가 1999년 마을 주민 3명과 '토고미 환경농업작목반'을 구성하여 1ha의 농지에 무농약 오리쌀 재배를 시작하였다.

경작지 조건이 오리농법에 적합하고 오리농법 쌀농사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차츰 여러 농가가 참여하여 그 면적이 확대되었다.

토고미 마을에서는 오리쌀의 효과적 판매를 위하여 '나눔의 농사가족', 즉 도시민 가족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나눔의 농사가족'이란 도시민 가족회원이 연간 3만5천 원을 내면(새끼오리 15마리에 해당) 추석에 무공해 오리쌀 한 말(8kg)을 보내 주고 마을 농산물 구입시 15% 할인 및 숙박시설 이용시 30%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이다.

좋은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어도 그것을 믿고 사갈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한상열씨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최수명씨가 고안해 낸 전략이다.

본격적인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다

200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화천군과 토고미 마을 주민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을의 환경 정비 차원에서 폐가를 전통가옥으로 보수하여 작은 농기구박물관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마을회관을 도시민의 숙박과 체험도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보수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하였다.

또한 2001년 6월 6일, 도시민들과 함께 눈에 오리를 넣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토고미 마을의 나눔의 농사가족으로 참여하게 된 도시민 회원은 150호에 이르게 되었다.

* 참고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란 강원도의 자체 정책사업으로서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의 발전 의지와 노력을 '정신', '환경', '소득'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토고미 자연학교를 개교하다

2002년에는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마을내의 폐교를 빌려 리모델링하여 '토고미 자연학교' 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운영 초기엔 연간 2백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주민들은 토고미 오리쌀 전용 마을정미소를 설치하여 보다 품질이 좋은 오리쌀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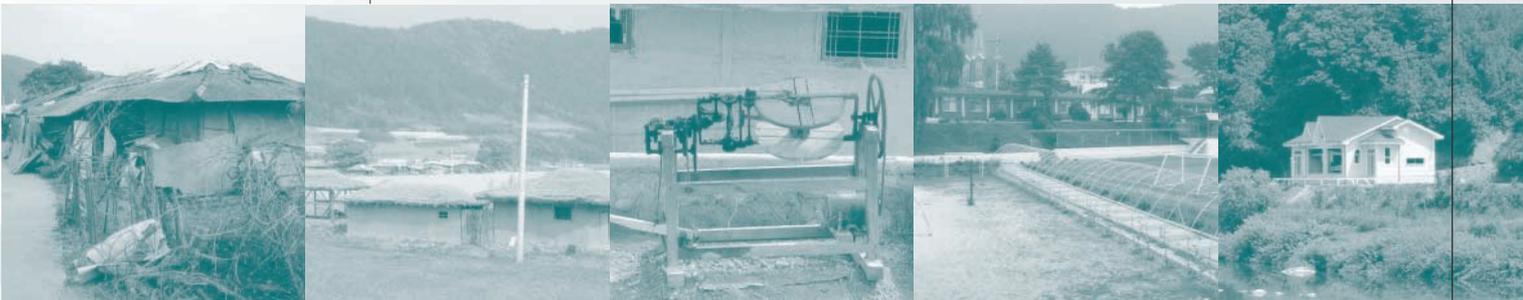
농촌관광의 체계를 정비하다

2003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공모 당시에 구축한 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카드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마을 공동 펜션도 조성하였다. 또한 토고미 자연학교 및 펜션 운영 등과 같이 마을의 농촌관광을 전담할 사무국장을 주민 중에서 고용하였고, 크고작은 농촌관광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에게는 적당한 임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 때부터는 마을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서 오리쌀의 판매도 급증하고 단체 체험객도 많아져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에도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일꾼을 맞아들이다

2004년에는 2천만 원의 연봉계약으로 마을 사무국장의 상근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오리쌀의 자체 등급제(특등, 1등, 2등)를 시행함으로써 자율적 품질 관리를 단행하였다. 등급 당 가격편차는 정곡 80kg을 기준으로 9천원 정도이다. 주민들은 오리쌀 택배 전용 포장재도 자체 개발하고 약 200평 규모의 마을공원도 조성하였다.

- 마을의 폐가
- 폐가를 초가흙집(박물관)으로 개보수
- 박물관에 전시된 전통 농기구
- 토고미 자연학교
- 토고미 공동 펜션



그밖에 지속적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입식대회, 소달구지 타기,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장 담그기, 허수아비 만들기, 염소 젓짜기, 나물 캐기, 물고기 잡기, 소 꼬뚜레 만들기 등 다종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구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체험, 농업체험, 농촌생활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계절마다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 금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 전통 농기구 사용법 체험 프로그램
- 오리 입식 체험 프로그램

● 오리쌀 택배 전용 포대와 포장재



150호에서 1,100호까지

2001년에 150호이던 토고미 마을의 도시민 가족회원(나눔의 농사가족 회원)은 2005년 8월 현재 1,100호이다. 주민들은 매달 영농일기를 도시민 가족회원들에게 보내 주어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편으로 농사가족 회원에게 매달 배달되는 영농일기는 A4용지에 간단한 안부인사, 계절의 변화와 농사의 진행에 관한 소식, 마을의 팔거리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 판매를 보다 강화하고 마을의 매력을 증대하기 위해 최근에는 토고미 자연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및 직장인 등 단체 방문자 대상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충, 실행할 계획으로 있다. 나아가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및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이웃 마을과의 연대 및 기업과의 교류를 구상 중이다.

2004년 겨울에는 남은 쌀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마을 할머니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과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 한과는 판매용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마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로서도 사용되었다.

2005년 8월, 논두렁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도농교류의 내용을 한 단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도 한 바 있다. 토고미 마을 주민, 화천군의 다른 마을 주민, 도시민 가족회원 등 350명이 작은 시골 마을에 모여 재즈 뮤지션, 유치원생 어린이 합창단, 국악 동호회원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끽한 것이다.



- 도시와 농촌주민, 노인과 어린이
모두 어울려 즐긴 시골 마을의 축제
한 여름밤에 열린 논두렁 재즈 페스티벌



4. 1999년 그후 6년, 토고미 마을이 달라졌다

먹고 살기 좋아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토고미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첫째는 경제적 성과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증가하고 마을을 찾아오는 도시민 방문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마을 소득이 증대되었다.

시중 쌀 20kg은 4~5만 원에 거래되지만, 토고미 오리쌀은 7만 원에 거래된다.

1999년에는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액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5억 원을 넘어섰다.

2002년도 이후에는 품질 관리와 수요 조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는 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토고미 마을의 경제적 성과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방문객 수 (명)	나눔의 농사가족 (호)	소득 (천 원)			비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	기타 (체험, 숙박)	계	
1999	1 ha	-	-	9,600	-	9,600	쌀
2000	3 ha	150	-	30,000	-	30,000	쌀
2001	15 ha	1,900	150	150,000	20,000	170,000	쌀 이외 3
2002	25 ha	4,500	450	302,400	30,000	332,400	쌀 이외 5
2003	25 ha	9,000	1,000	380,000	70,000	450,000	다품종
2004	25 ha	10,000	1,100	500,000	150,000	650,000	다품종

토고미 마을, 유명해지다

둘째, 각종 정책사업 및 경진대회에서 마을 발전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수상하는 명예를 안게 되었다.

- 200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강원도)
- 2001년 홈페이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농림부)
-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농림부)
- 2002년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대상 수상 (농림부)
- 2002년 녹색경영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 2002년 고품질 쌀 경진대회 장려상 (농림부)
- 2002년 정보화마을 선정 (행정자치부)
- 2003년 세계농업기술대상 수상 (농촌진흥청)
-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구 지정 (농림부)

활기가 도는 마을로 거듭나다

셋째, 소득의 증대와 외부의 주목 등이 맞물리면서 주민들은 어느새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늘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패배주의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로 전환되었다.

화천군에도 효자노릇하다

넷째, 우리나라 농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화천군 내에 유사한 마을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지역 활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5. 토고미를 통해 배운다

토고미 마을의 도농교류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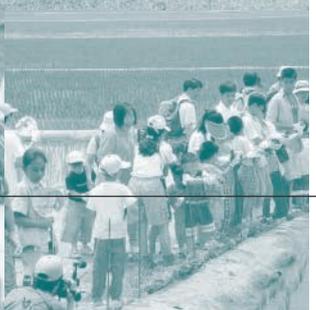
첫째, 신뢰에 기반한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앞서 도농교류의 의의와 특성에서 언급한 이상적 형태를 그대로 실증하고 있다. 일회성·익명성이 아닌 쌍방향의 신뢰에 기반한 반복적, 지속적 교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도시민의 재방문이 이어지고 농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단한 개발이 아니라 여느 마을에나 존재하는 자연, 농업, 생활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도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상품화하는 나눔의 농사가족 전략을 통해 탄탄한 사업 모델이 구축되었다.

둘째, 무엇보다 도농교류사업 성공의 기초 역시 '사람'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을 지도자의 헌신과 노력,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공무원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물론 외부 전문가의 측면 지원이나 자치단체와 매스컴 등의 마케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가 소득증대의 주 원천이었다는 점이다. 시설 정비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단지 마을을 마케팅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 소득의 원천은 결국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였다.

넷째, 도농교류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주민들과 도시주민들이 함께 만족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촌주민들은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가치 존중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도시주민들 역시 직접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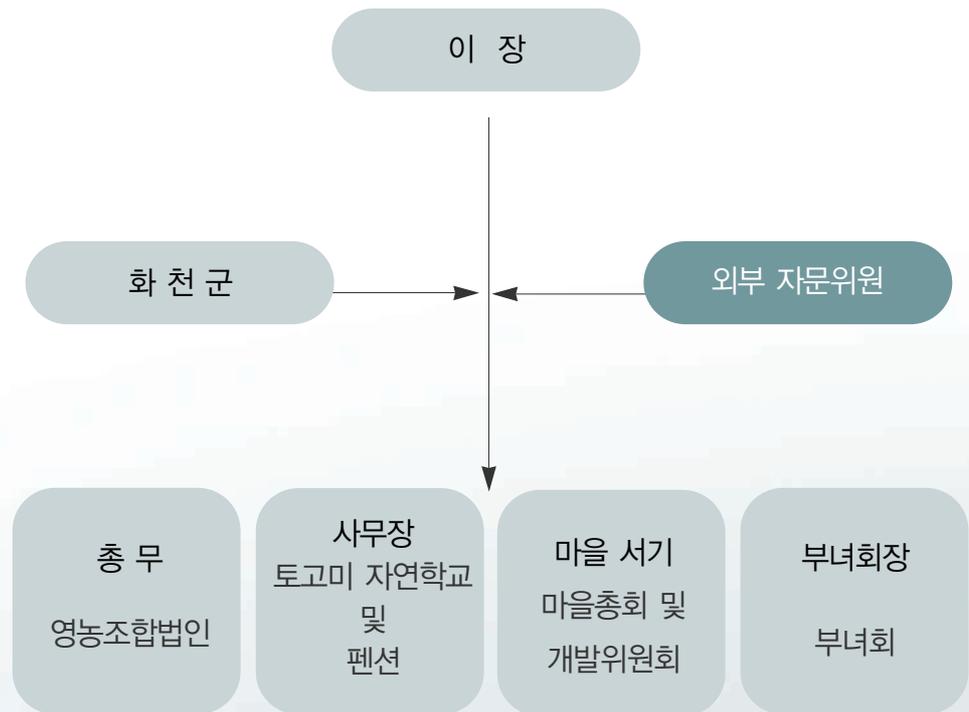
6. 남겨진 과제들

그러나 남겨져 있는 과제도 없지 않다

첫째, 소수 주민에게 주어진 부담이다. 이장, 사무국장, 마을조직 대표, 공무원 등에게는 본업 이외에도 마을 공동의 일을 선도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이를 주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하기에는 그 역량에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마을 경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다져나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장은 마을의 CEO로서 총괄 관리나 대외 활동을 주로 하며, 농사와 관련된 업무는 영농조합법인(환경농업 작목반) 총무, 농촌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자연학교 사무국장,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는 마을 서기 및 부녀회장이 분담하는 체계이다.

이는 작은 마을 내에서도 역할 분담과 목소리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고안이다.



마을경영구조의 개념도

둘째, 도농교류의 사업화는 주민 공동체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주목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공동체로서 당연히 참여했었던 정도의 마을 일에도 주민들은 일당을 기대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고려하게 되었다.

셋째, 농촌 문화의 왜곡된 포장과 일률화이다.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환경 정비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만의 특성이나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도시민들의 수요에만 부응하여 해당 마을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할 우려가 있다.

넷째, 토고미 마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 생활의 본질이나 소득의 원천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논의는 단지 그것이 밥팔고 방팔아서 돈버는 사업이라는 단기적 인식으로 굳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토고미 마을에 대한 짧은 한마디

한상렬 토고미 이장님

“ 우리의 꿈은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든 할머니는 장 담그시고 젊은 농사꾼은 최고의 농산물을 가꾸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소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의 경영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열정과 인내심이 있는 몇 사람이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주민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2005년 9월 1일, 토고미 자연학교에서). ”



정갑철 화천 군수님

“ 토고미 마을은 다른 곳보다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발의 잇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중매체, 외부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도 클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도 흥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의 여러 곳에서 많은 마을들이 약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토고미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이 처음에 품었던 마음 그대로 농촌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인적자원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합니다 (2005년 9월 1일, 화천군청 군수실에서). ”

지역경영전략 연구 시리즈 ① 호 토고미 마을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5. 9.

발 행 2005. 9.

발행인 허길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Tel. 02-3299-4000 Fax. 02-960-0163 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Tel. 02-2242-7120 Fax.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